— F-145 —

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심인성 쇼크 환자에서 대동맥 풍선 펌프 사용의 임상 특징

전남대학교병원 심장센터 심도자실, 순환기내과

*김정훈·정명호·김인수·박수환·이두환·최옥자·이지숙·정민아·박현아·심두선·조정선·정종원·윤남식·문재연·홍영 준·김주한·안영근·조정관·박종춘·강정채

연구배경: 심인성 쇼크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사망원인 중 가장 흔한 것 중의 하나이며,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질환이다. 심인성 쇼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심근의 허혈 또는 경색에 의한 발생이 흔하며, 일반적으로 40% 이상의 좌심실 심근을 잃었을 때 발생한다.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쇼크 환자의 치료에서 약물치료. 그리고 조기에 심장 보조펌프 장치 및 관상동 맥혈류 회복을 위한 재개통요법은 중요한 부분이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쇼크 환자에서 경피적 관 상동맥 중재술시 대동맥 풍선 펌프(intra-aortic balloon pump: IABP) 사용의 임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 대상 및 방법: 2006 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본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쇼크 환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환자 61명(65.5±11.1세, 남자 38명)를 대상으로 병원 내 사망에 따라 양군으로 나누어 임상, 조영술 및 시술에 따른 특징을 비교하였다. 결과: 대상 환자의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증 41명, 불안정형 협심증 10명 이었으며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(급성 심근경 색증 p=0.190, 불안정형 협심증 p=0.614). 양군 간의 연령(66.5±11.5세 vs. 64.8±10.8세, p=0.548), 성별(62.5% vs. 62.2%, p=0.979), 고혈압(45.8% vs. 43.2%, p=0.842), 당뇨병(45.8% vs. 32.4%, p=0.291), 흡연력(41.7% vs. 43.2%, p=0.903) 다혈관 질환의 빈도 (p>0.05),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과거력(29.2% vs. 27.0%, p=0.903)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또한 내원 시 좌심실 구혈률 (p=0.577), 수축기 혈압(p=0.234), PH(p=0.092), O2Sat(p=0.050), Creatinine(p=0.139), Troponin-I(p=0.310)도 양군 간의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.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전 IABP 시술환자에서 높은 사망 빈도를 보였으며(전 51.6% vs. 후 26.7%, p=0.046), 스텐트 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생존율이 높았다(41.7% vs. 73.0%, p=0.014). 또한 시술 전 TIMI flow I, Ⅱ 군, 시술 후 호흡 보조장치를 사용한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사망 빈도를 보였다(p<0.05), 결론: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인성 쇼크 환자에서 경피적 관상동 맥 중재술시 IABP 사용 시에 병원 내 사망 예측인자는 IABP 시술 시점, 병변 혈관에 대한 스텐트 시술, 시술전 TIMI flow, 시술 후 호흡 보조장치의 사용 유무 등이었다.

— F-146 —

최근 10 년간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외래 환자의 변화

전남대학병원 간호부, 순환기내과

*설수영 · 정명호 · 한수경 · 이경옥 · 김영미 · 조애숙 · 류향자 · 안미영 · 장미선 · 임상춘 · 조숙희 · 심재연 이숙자 · 최영자 · 김주한 · 안영근 · 조정관 · 박종춘 · 강정채

연구배경: 국내에서 심장판막 질환이 감소하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. 최근 11년간 대학병원 순환기 외래 환자 중 고혈압 환자를 포함하여 순환기 질환자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. 방법: 199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전남대학교병원 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던 환자 184,370 예의 일차 진단명 중 고혈압, 협심증, 심근경색증, 판막질환, 부정맥, 심부전증, 심근증 등의 비율을 분석하여 연간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여 고혈압 환자의 변화를 관찰하였다. : 결론: 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는 순환기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, 심근경색증 및 협심증 환자는 증가하였고 심장판막질환 환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었다.

